

洪吉童傳

三三
四四

十

朝
48
14



60
48
44

홍길동전 권지완

화철도철국

세종도시철의글씨생이리시니철

은홍이오명은되리더데그병은되죽으로죽년등과

호여벼홀이니죽관되의니그의물생이도야의웃

듬이오홍호정세죽기로일홍이일죽의진동호터

라일죽두아놀을두어시니일죽년일홍이인형이

니형실누시호형이오일죽년일홍이길동이니시

비죽천의호형이라천시의공이길동을다홍씨의

일물홍을어드나본듯보형병년이진동호여형홍이

죽년은되수리니공의세행호여라라들되늘늘다

여라르니일생홍홍이라심홍의리희호여생각을

되니이제홍홍을어려시니반은시리호조식을나

호리하호은죽시니랑으로도드어가니북인누시니

러웃거늘공이호현이그옥죽를니그러정이친암

朝鮮總督府 保善本

이러한가늘거늘부이이경신말상공이회위존종후시
거늘년속정색그의비록늘을형고취후시나원함은
봉헌이치이나출리로후이와후인언파의손을합회
이나가거늘공이사장우류늘여본의를충치뜻을
리익향이나익우인의치식이입스물한탄술려나
맛춤시미출함이뜻를을나거늘구은우늘을인늘
여출침을익늘은협심을의드러가정이천압후나이
현출현의나히심합이이다흔번몸을히출후로고의
의나치이나늘은다인을출취출뜻이업스나공이과
극이덕여인늘여익출을삼아려나마연노갈을거
립외익쳐심속은의익회옥등을심출나과갈이배
범늘여진짓영웅호출의과상이라공이일번것외
출나부인의거나치못늘을한거려갈등이침은
라갈세되어홍명이라인늘여늘이할드문년익을

통후나 광이 티목의 총후나 근본 원성이라 길동이
의양후부 호영후년 본즉석지취 불극게 후나 길동
이심제 년동죽 감히 보행후부 르지못 후는 비복 등
이현의 후를 학수동한 후에 심스름치 못 후려나
후구와할상 간을향 후의 병월은 조복후는 형후은 소
술후의 사공의 심의 회를 몸년 지다 길동이 석강의 석
구름후려다가 본즉석안을 일치는 라알대쟁위치상
이나의 공행후를 못 후지 못 후년 할아 라 병염을 의와
다쟁나을 후하의 백기 초는 동경서말 후여 국가의
직후을 체후는 이을 후을 안 뒤의 백니시 장후의 쾌시
다나노 어지 후의 이을 신이 전후 후는 후후행이 시되
한후의 이행후를 못 후나 심쟁이 더질치라 어지동한치
아나 리어 후는 이을 못 후는 일의 나려 건술을 광의
후려나 맛후공이 또 후의 열을 후는 후경 후와 가 길동의

비회한물을 보든 죽시든 내 몸은 알네 무슴함이 2 처야
심든죽 잠을 거치 아니 할논 다 할 농이 공경 된을
이 이 밧춤을 될 것을 사랑할 미여 너와 대해 하 놀이 만
공을 너 시의 오직 사름이 키 줄은 다 죽이 의 게 너 르
러 논 리 줄은 너 업스 오나 엇지 사름이 라 줄 오 리 의
가 공이 그 말을 지 작 할 다 짐 죽 칭 알네 무슴 할 일 은
킬 동이 처인 인을 줄이 이 평 형 철은 너는 네 감 청 의
로 랑 2 줄은 나 지 되 여 스 오 네 부 칭 모 후 지 은 이 김
숨 거 놀 구 부 친 을 보 치 이 라 북 2 줄은 2 구 형 을 형 이
라 북 줄은 다 엇지 사름이 라 줄 우리 의 가 줄은 논 불
을 할 여 단 삼 을 취 시 되 농 공 이 청 화 의 비 록 죽 은 줄
나 만 일 그 들 2 줄 위 르 2 줄 연 모 오 는 이 쌍 2 줄 가 되 이 크
게 옥 지 되 알 지 생 가 천 에 죽 성 아 세 란 너 일 이 이 다
여 르 네 엇 지 쌍 2 줄 이 밧 춤 은 초 후 다 시 이 란 알

이그시면 안천의 용암이 못 흘러라 하니 길동이 갑야
일이 인물이니 치복출은 다 안복치유 회생이라 상이 심은
여물어 가라 출의 불길동이 힘으로 드라와 슬히 흘려
지 아니 흘러라 길동이 본 뒤 뒤 괴의 출은 도랭이 활달
흔치라. 다음을 진칭이 치복출며 밤이 면 검을 빌려져 못
타니 이 이의 길동이 어이 힘술의 가을며 이 앞을 집트 친이
드던 무라 천성년은 이 출을여 금체의 모지 되으니 은 해
극출은 지라 구덩나 소근의 팔지 괴악 출여 천 출은 이 되
니 큰 은 한이 김스 온지라 장회 세상의 회 출해 남의 천
덕 이의 불길 출은 지라. 순저 자연의 은 출을 역과 치복출
여 무천을 하를 면나 이 출은 나 불은 은 천은 순저를 면
치복출시 이 제 체를 노 출을 소작그어 미청화의 대성 앞을
시 상의 천성이 너 생인이 아니여는 어지 현 이의 은 출을
여어 이 단 갱을 살 수로 이의 길동이 제 앞을 빛을 장총의 이 들

오래오래 해를 돌고 돌아서 참하리라 하니 무비등은 깃대적
알지금후이온뜻과이일등관상네이시니사람의상을
흔히오면전후길흉을관한출너니이사람을칭호하여
수원을스시니큰생공의천지출어천후수을본다시
이후이생공이필연회후출새그윽히물업시코쳐출시
리니그씨를다여우르출면아지모게이나라이근초난
이며희출여번쳐은조우영을출주며상즈를칭출여
우라출너모베하정근가나라이출날공이니왕의드
러와보이아니출근의길동악비연출출출근너라
만천성이출한한출은칭호말수출너니은두출너적
드러와랑하의본안출너불공이이니이너여은알고
된너어너출너저안적무수일노왔노고너적알수이
은한상출너드이를수너다맛츠남상공은하의니너너
나이의공이수언을드니길동의니스로출출은천출여적

시를 보거나 상제에 응하되다 가늘다 면 알야공주의 상
을 보거나 천은 영영이 어의의 천은 영영이로 되학 만 지 체우
죽을이나 라르 드의 노영영을 가늘노이다. 죽을노는 영영은
죽을의 가늘 죽을과 불상과 복이이 가 장은 히어 영영은
습말을 노와 드워 드노라 상제나 지복을여 권이 노영영이
치은 알야공주의 상은 노은 죽을영영의 주영영은 노영영이
간의 산 천영. 괴영. 농영은 다 진진 영영의 괴상 이라 장
영은 노영 영영을 지화물 영영은 다 상관을 영영의 노
쉬공이 천영. 화의 영은 영영은 노영영의 노영영을 영영은 알
사들의 활주 노영영이 어 영영이와 노이 어의 영영을 노영영
치영은 다. 랑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이 영영을 영영의 영영을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희나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영영은

이름을 알지 못하면 크게 근심하고 알지 못하면 크게 회개하시리라 만
일 배반과 같은 일을 보아 변상년의 잘못과 같으리니 이를 참
맛어지지 할 리오 후라도 이제 후라도 이 복년와 상조를 볼
동후에 공의 변상을 보아 남의 후로는 길동은 없사코 천수를
여천금을 할바라지 아니하리라 일후의 득죄라 천후스
로를 가지니 큰 후난이 공의 잘못을 천수비아는 후의 귀
신사슴을 길복의니 스를 어지취치 후시느니 잇가 천
년도 후의은 도려의 후후는 노의 일후를 업시 후의 잇
지복은 리로 후이 리공의 잘못을 드는 천수를 생가여
알지 못할은 대쟁종의 이시느니 너는 번 리이구치 할바라
후다 치다 심시조연 신안후의 밤이면 증후를 후구지 못
후는 이 후의 변이 된 지라 후의 인과 과량인 형이크게 근
심후의 아후의 후를 보리라 후의 것히 되쳐 리가
리알생공한 회개의 후는 후시느니 리후를 드시미리 권후는

소견은... (The text is written vertically from right to left in a traditional Korean style, though the characters are somewhat faded and difficult to read precisely. It appears to be a philosophical or historical text.)

최후사함을행한것은인연의지연이다.영수같이우리는전연을
너무너니흔들면인연은이내려다버큰해뵈드지은
사색이날다.거늘특정경신을속습하여술병이다.거늘
이러베특구회죽을신과히너이다.엇지나를위척술의
우리는라라.들며대호할다.너는이다.나를위척술다
난이우녀와상조도술의금상공마의는너는이다.너를
러술의나엇지나를위척술다.우리는라라.들며대호할
들거늘거늘이은외를출지엇술의우를노특정의갈
을의서들은.러웨알네.진을.란.후의상를.이.를.로
하.이.나.나.가.한.수.도.를.늘.을.출.여.후.의.환.을.임.시.술.리
라.술.은.술.의.갈.을.들.다.특.정의.어.리.방.중.의.나.러.지.는
지.라.갈.동.이.은.과.를.니.기.지.못.을.여.이.은.의.어.도.상.녀.을
잡.아.특.정.중.의.은.의.드.리.치.은.어.지.척.을.대.술.을.단.의.러
우.심.원.치.이.러.의.술.다.아.술.가.지.로.나.를.출.이.러.술.리

나를 논 비히 나 잊지 가 린 차 아 니 후 리 오 이 션 기 들 돈 이 깃 이
이 들 진 구 의 이 글 이 주 회 들 들 논 지 라 본 의 로 출 지 못 고
이 후 초 난 을 주 구 이 는 리 후 라 가 생 공 이 사 단 후 시 을 연 파
고 잘 상 를 리 치 배 방 영 도 신 을 들 심 작 고 는 만 도 생 공 치 침
소 의 나 가 가 하 지 고 들 은 고 죄 을 용 더 다 이 형 공 이 창 의 의 이
적 이 시 불 은 이 하 나 여 창 을 열 는 는 보 다 이 후 잘 들 등 이 라 인
경 일 앞 아 같 허 거 불 내 엿 자 지 이 나 늘 는 이 리 행 항 는
는 다 잘 들 등 이 복 지 되 알 소 이 이 일 죽 보 성 보 후 격 지 은 을 만
본 지 이 일 이 나 참 을 가 는 더 다 가 나 이 들 들 의 지 이 이 깃 스
외 생 공 과 출 소 늘 는 소 이 을 주 구 이 더 후 의 계 후 후 습 은
보 천 늘 여 스 오 다 생 공 을 모 실 는 곧 업 습 기 는 그 들 이 생 공
그 하 장 이 을 이 글 이 다 늘 서 볼 공 이 된 경 일 들 데 후 의 면 의
이 습 관 지 어 면 이 하 지 어 면 이 리 는 어 된 노 수 려 후 서 기 관 관 이

이리 있을 날이 바르우면 주연아르시련이 와 소인의 신체는
밖으로 파갓스오다. 생공의 빠린 조식이 어지 망스르르너
리이스는 할며 쌍귀중항을 의신을 인공구지 못을 원드공
이그침은 상을 보르 초우이 보며 권이거 앓르너너의 무리이한
은그침장나나나. 근이르너초하, 호우, 호침은 불침, 지노라
필동은이 지의 앓르스르의 일로 편저한을 아예 무려 죽음시
나 죽서 도한이 업도 소이 다 북상야르노만 죽우 강, 근은
소적, 근은 저의 하직 할다 공이 보르지 못할은 다한 무스
할물음은 부를러다. 필동은이 언어 저침은이 가나. 불을 할
할어 앓르 소저 지금을 하로 할러나오리. 다시 의신 죽날이 있스
오리다. 모침은은 그스이 권체를 불중을 스외. 죽은이 인
을드르은 부스변 리이사 불진학 할다. 스의 하침, 호침은은
은집속 동곡 앓르네이 저르행코저 할드하. 근은의 이저
도회외출한 할의 비양언, 할러다. 이, 재, 더로 할러치업

그즈음에 드립카니 큰 산회 및히 석봉이 맞쳐서 높지하
 니그고산이 높기는 드립카니 평원인 양아의 속변이 높이는
 벽을이 여러 산들이 무와 잔치를이 즐기니 이곳이 드립
 카니의 산이 산대니 *Timpanov* 또는 구위의이 높이지 아니
 만고 물을이 그 저가 있어 산들이와 리 이곳의 층은 낮고
 이곳이 높은이 모든이다 이곳의 산을 평정치 못을 여러
 사니그 산이 높을을 높이의 외출녀고 쳐는 친척들이 드
 리어 드립카니가 이 산이 드립카니나 평정치 못을 나
 성은 평정치 못의 산을 높을을 높이어가 높은 친척들이
 지이다. *Timpanov* 산의 산이 높을을 높이어가 높은 친척들이
 연이 이곳의 산이 높을을 높이어가 높은 친척들이
 승감사 높거나 외장위인지 좌안호들을 들기론 근사한
 리오 높은이그 산이 높을을 높이어가 높은 친척들이
 돌은이 천근이라 제천이 높을을 높이어가 높은 친척들이

다우의 속현명종의 이들을 들지 않더니 오날로 하느님이
도르샤 장군을 죽시미르라. 술은 길동을 상좌의 안치는
술을 들지 못하니 술은 빙사 죽이 임계 술이며 언행은 술게
하니 종인이 일시의 이음나 술은 종일 술을 거더니. 이 후로
길동 이 제인 이르도 더디 무예로 연습 술면 속이 알지니
이 근행이 처음 체하지라. 일술은 체이이니 곧 되 이 동이
말외 함원해인 사로 불취 그 정을 술로 리 불 취 고치 술다. 지각
이 요 죽 술이 거 조로 술을 치 불 술이 더니 이 제 장군의 이 행
이 언더 술시 잇고 길동 이 술을 더 진 술을 술이 니 그 제
동은 지 현 리로 술라 술은 청도 후 리의 나 귀로 리은 종
스 속이 술 다 리은 나가 선 술시 그 절의 가 동 청이 술이 이 오
리 리 술은 가나 안 술 술 진 술 가 스 제 이 가 그 절의 더 리 가
비 최 술 스 술 술 술이 나 르 되 나 는 경 씬 술 술 판 서 딕 스 제 리
이 절 술 이 와 그 술 술 술 리 잇 거 다 이 병 이 술 이 미 이 술 술

이것이 바로 저지시나 유숙을 평히 할 것이면 너의 뜻을 누르면까지
르니 이리니 후는 사종으로 두루 살피며 보며 능가 할 줄을 귀역
을 근동스도 나으니 제승이 깃거 울려라. 길은 능이 드러
의 반의 속 삼척을 의서 은 종의 인으로 드러 알면 너아 보나로
은 그 칠의 가이리니 후리나 그 리 등은 뒤를 좃츠와 이
리니 후라 후는 그 날은 후기 다려 종스 속 심의 인으로 드러 리
히 인 사의 나리니 제승이 바스 드러 리니 길은 능이 노승을
보리라 후 할 너 보나 심 살 누 유 식이 부족 지 이니 후려 노 노
승을 너 지면 그 족 후 리 잇 가 너 후 할 감 후 여 이 다 길은 능
이 생 작 의 인 은 제승을 의로 제 이 횡 출 여 각 기 상 을 의 잇
게 능 은 너 죄 승 을 후 마 시 여 처 제 로 권 후 니 모든 종의 횡
감 후 여 후 리 라 리 능 능 이 상 을 후 후 은 막 터 니 모든 그 모 리 를
가 나 니 너 의 너 요 선 후 니 그 소 리 큰 지 라 제 승 이 등 은 불
나 사 죄 승 서 볼 길 동 이 거 주 리 로 후 여 석 지 죄 알 너 의

등이 어저옵시옵나니 이리저로 평케 호호이 논한 라시니 평
한이러니 호호은 좋은 것의 기쁨을 호호하여 제송을 하호호호호호호호
박을이 안치니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적을을 다 채 것 가 죄 가 뜻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러니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적의 덕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삼님은 의의를 나워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너가 잘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잡시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철노도리으니 모든 사람이 밭쳐 지복을으로 수감하는 것
느치라 일시의 나와 수레를져 놓길 동이 수팔을 장막이 한
진죄업스면 엇지 중인의 죄 쇠되리오 후러리이 후로수
동이지후를한을엔 장이라 줄여 표현 할드르한 나 명장을
속령이 불이그드전물을이시면갈취후는후지빈두의
글치이시면저죄를버니복성을침행치아나 줄은나리의
속을전복은후호드배우치아나 줄이나러드드취이그
의취를한복을려라일로는길동이제이호를보호는의논
알이제할삼감서람만우리드중인은택후여니복성이다
정척지못할논지라우리동이그죄주지못줄리니그죄
등은나의지회적고복을인 줄은후아신물을터드려가이호
날밤의그악을정술은나를을의복을를지르니감식리
경술여그복을을주후다줄니만족이여복성드리일시
의니라나그복을을주후를서길동이속이적당이일기시의

성종의 라라 드러 창은 돌 열은 천주 미주와 돌 주라 한 돌
여 성종은 도라다. 나가 성종의 어인 돌의 돌을 돌 돌 돌
지라 감신 돌의 의면 돌 창 돌여 아 드러 돌 돌 돌 돌 돌
나 돌이 돌이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거 돌 감신 돌 감신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그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나 돌이 돌이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의 돌 돌이 돌이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함경감영의 가 천 국을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나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기치를 지니고 그 뒤를 은나 의 직조를 보지나. 혹은 즉시 출이
이름을 들은 민은 그의 진어를 범후는 흥행의 열을 보지나. 이름과
길동은 이름의 시의 뜻을 잊어 버려 크대 소리 혹은 흥행의 무와
난한 이 속작을 다 어부지시 정길동이 처아 지못하는 지
라 팔도의 흥아식 후하지 되와는 사름 속 박어 범의 식거는
러는 단나 그 흥의 도정길동이 어대 곳의 이 흥을 아지 못
후를 데라 여된 길동이 팔도의 단나 여흥의 흥아를 보지 못
을 흥은 단나 각 유창곡이 일약간의 흥척 업시 가려가 버
서 흥은 단나 흥의 흥의 심업시 할 처를 다 팔도 각 유이 소
오 흥의 흥의 흥의 흥을 쓰지 못하는 흥도의 흥의 인이 은
취시나 이 흥의 흥도 팔도 흥의 흥의 흥이 같히 이 흥의 흥의 흥
나 리 흥의 흥이 되나 흥의 흥의 흥의 흥이 단내 흥의 흥이 흥
히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
물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의 흥

죽지 못함은 연장 못하여 지성의니를 줄아치 못함은 리
니 북양 성생은 좌우 통천으로도 죽을 줄 모르며 너라
생이 보지 근대성 후사 통생은 생은 초월을 의연 후의
팔도 장계를 줄아는 지의 연을 여혀 허보지니 도척
의이름은 이라 후를 등이라 후엇은 천국 일흔이를 그를
보지나 한 손 줄아생이 근대 줄아사 불은 사적 이도
척의 용의와 줄아법은 빛날치위라 도강치 못함의 도와
아오리신과 줄아는 들엇지 후몸이 팔도의 잇쳐 줄아
출시의 도척 줄아오는 심상 줄아도척이 아니라 죽기
어려이라 좌우 통생이 팔근후이 근도척을 줄아
사나 이척우로 갱나후이 죽을 신이 비록 저죄 업사
은나 근도척을 줄아오리나 천하는 근심마로 호쳐이
척과우로 갱이엇지 병을 줄아잇사 생이 줄아너이
사근히 줄아은 줄아를 저척 줄아사나 근후이 하직 줄아하

관공을 보러 가신다. 관공이 관하에서 각고 노력하여 모든 공물을
이루고 노비를 안출하여 노비들이 양간도 공물을 수산하는 것을
다 리는 번번히 관하에서 노비들이 양간도 공물을 수산하는 것을
을 초조히 더더욱 두어 일취월장하니 귀를 다 듣고서와
거를 두어 일취월장하니 귀를 다 듣고서와
천지간에 아악의 왕도 오를도지 임의 왕의 왕신이라
나 소왕이 세를 행국의 이신다. 구가 관하에서
로 소왕이 세를 행국의 이신다. 구가 관하에서
년왕이 세를 행국의 이신다. 구가 관하에서
미인시인이 소왕을 구가 이놈을 구가 이놈을 구가
어지본한치 아니라 오로왕이 세를 행국의 이신다. 구가
이왕이 세를 행국의 이신다. 구가 관하에서
이제이다. 구가 관하에서
구를 행국의 이신다. 구가 관하에서

더나 그 소원이 문득 들쳐서 벼알이듯이 길동이의 그
혈이 다니 문쳐 푸러지람지 흘피시나 구워는 여의
서기 푸러한 포쟁이 모음의 심되나 열나 줍이 오를
랑무름은 안드나 이윽은 홀연 산속으로 쫓듯 속
십근 줄이 은한이 소러 지르며 나려오는 지라 포쟁
이쳐 경홀여 회교쳐 흘려나 권은 갖가이와 포쟁을
결박을 석옥지려알네로드워 장나 휴이와 우리 등이
지반왕병을바다나를 줄이러 앓다 죽은 회를삭으로
죽을을가 풍우앗치 모의가나 포쟁이 홀을 부쳐
여 안으로 줄이러 노는 지라 울피의 다라 소러 지르며
슬며시 치되 놀포쟁이 정신을 가다듬어 치미러
나공월이 광대 울피우 속 울항전석좌우의나
홀이 전생의 일의 근왕이 좌업의 안드여 형알네
막 팔우로엇지 흥쟁은 줄이러 홀이 이리 울피

를 주이 동도 원의 가도리라 포쟁이 게오 형은 을
허울은 이 은이 안의 흠이 흠사람이 리모회 이삼현
시나 살며 부의 불보라 노이 다 흠은 심이이 의 결을
불천생의 처우 흠소리 나며 어지천을 이삼 사람이 나
스시부라 나노와 활의 양형은 흠을 동이라 그위나
흠은리 흠의 공은 냐와 실을 흠은 권을 여객의 의
로소년은도 그위로이로 흠어 이삼의와 나그위
빈대 흠이라 흠은 언화의 작으를 병을 여민외
너방의 안치은 소을 나와 권을 여활을 그위
시간나 지을은 설나 도라 가되 나
시절척이 흠을 거시나 부러 이
다시 흠을 흠은 권을 여활은 그위
나로쟁이 형각을 회비가 아
극한이 리와 시서 흠을 동의
신기이

고려하러나 홀연스지물오동치못을노지라 고히려
여청신을진청을여살펴보니가총구리속이드려거
불간신이와분극부러위의남외결의사늘트레르
홀려너형부나 처연현을케라라온왔던히이이라서로
노된되이러사어진을이이이라습을케도경은도모히거
늘여려나엇지이곳의왔노는을은두르스출려보니라큰
곳아나오장안성부왕이라사이어이이업서장안을
구번부처하인이라려을다홀려노엇지이곳의왔노는을은
이이알을술이름은죽천의처주옵더니홀연동은의사
이여이와왔스오나부승은은로를아지못홀이로승이라로
장알이이름이가장허우빙낭홀다남의세천철치상
나그러나갈름등의지침을출홀다엇지이름으로써잡으
리오우리름이르케구쳐드려가번필형회로연치못을
리나아직죽의을을기드려드려가스홀은나려우려라

혹시 생이 팔도의 형광속사길동을잡으리혹시되고
별행물을축하여 장안대르호축한도라리왕년호하여
혹각음의노문노고쌍교도라리왕년호하여혹어수의
모양을출여각음속령중탈만우리출년자를문득
선참후계출되가어수용길동의계문이라출다생이
더욱진노축사알이남이각도의단다어런작년을
출되아모도잡지못하니이로장차엇지출리오출시
삼용우형을보와의본출시더다연출여장계은다
다팔도의홍길동이작난출노장제라생이츠레로보
시니크게근심출사좌우를도라보시벼본알이남이
아바도사류은이나오취신의작패다도신중기근은
을집착출리오일일이출출죽을출출은전년다
결관서홍문의서조오병조좌랑홍인형의서체오다
이제그무스름나리출여천문출시어스연아리결자를

나 다 생이 악 노릇을 이념을 얻지 이 제야 후는 각을
시은 즉 시흥으로 노릇으로 나 후는 번처이 영을
아 드려진 즉 후를 이 현의 진 후를 사 처의 을 처
되길 동 이란 도적 이 녀의 처제라 후나 이 지 금란 처이
후는 그 처 두어 그 구의 대 환 이 되게 후 노 비 언 을
드려 지 이 나 후는 녀의 보 구 의 총 호를 노라 보 지 이 나 리
나 후는 나 중 이 드려 도 천 대 변 을 업 제 후라 이 영 이 항 광
후는 연 연 돈 후 왕 신 의 환 후 이 이 처 일 즉 사 구
중 이 이 양 영 도 즉 후 은 지 후 년 이 지 나 오 되 그 존 영 을 아
음 지 북 후 의 신 의 후 은 이 의 일 노 인 후 이 신 영 이 처 중
후와 병 제 즉 처 이 은 중 노 동 의 무 도 후 후 노 모 의 생
의 근 심 을 이 치 은 나 신 의 최 만 후 후 처 이 은 나 북 양 천 하
노는 지 닷 을 드려 음 처 신 의 이 비 죄 를 사 후 사 집 의 도
라 가 즉 병 제 후 신 신 이 즉 기 노 매 길 동 을 후 아 신 의

부스의 죄를 속하기를 가솔노 이하 생이 불과의 현생이
 갑동 속사 죽시 흉모를 사 속시 은 인형으로 정승 상한
 손글 제 속 속사 알형이 만일 갑스의 과수 업스면 기를 동
 을 죽이지 못하거시오 인형 한을 청하여 죽노니 죽이 죽이
 두리라 속시나 인형이 빈의 사을 죽이 인형을 하 직을
 너 죽이 인형을 인형을 가 영의 도인형을 가 영의 인형을 부
 치나 인형을 동을 팔너는 방이라 기스의 알을○사름이 세
 상의 나 의을 천이 은 두이 오려 권이 리 시 된 인의 배치 본
 병을 다 놓이 료 아 치 못 죽은 권의 인형을 다 영을 여
 불을 총으로 되며 언지 제 상의 용을 죽이 오우 리 아 오
 권을 인이 인의 인형을 알다 시나 스스로 형을 죽은 의 사로
 죽 하라 우 리 부 친이 될 노 팔 되 암 아 병 남을 죽을 시
 이 형 생이 크 되 큰 심 죽 시 나 내 죄 악이 한 형을 죽 치라
 이 러므로 나 를 죽 벌이 도면 을 제 속 속사 나 를 죽이

드러라 할시 너 만일 슬금치 못하면 우리 흥분의 기가 되 형
등의 일을 주의 별을 만나 엿지를 못치 아니나 너도 만일 너
아니고 할동은 이 별을 생각 할시 이 별은 주 장현 흥분 너의 화도
덜을 너의 시의 일을 온을 보곤 너의 너이지 못게라 너는 온
번씩 각을 하여 주 현을 만나 할시 너라 ○갈시 이 방을 각을
의 빛치 온공사를 권하여 할동이 주 현을 만나 기라
라 너의 일을 온을 온을 만나 너를 만나 할시 너의 너
리 온을 온을 만나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의 너
라 할시 너 그 온을 만나 할시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
을 드러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
전으로 온을 만나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
할시 너를 만나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
의 향을 만나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
의 큰 근심이 되게 만나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의 너를 만나 할시 너

형을 여섯 달 동안이 되어 세상의 비차 못함을 죄를 수르니
라 이리 후로 청생이 전후 속사 날노 후여 금너를 줄
아 드린 리 후 시니 이는 피치 못함을 죄라 너는 일즉 경
사의 나 아 가 현 생을 초후라 후는 불을 밟후 너는
불이 세으듯 후라 불을 밟을 이 버리 못할 이는 알 현 생이
이의 나 근본 보 현의 위체 후를 구고 후라 이 어지 각
른 불이 이 시라 오리 처 암 개 서 장 후의 현 후를 들을
이 후 여 보 친 후 후 친 이 라 후는 현 후를 이라 후 여 견
들을 어지 이 이 나 드린 이 후는 왕 스는 이 후를 들 어 너
이 체 속 체를 밟을 후 여 정 스로 후를 너 보의 후 처 후 이 라
시 후 이 업 거 불 감 시 이 후 후를 너 보의 후를 어 후 너 일 변
장 제 너를 밟을 후 여 후를 해 후 후는 함 자 의 신 너 건 장
후 생 요 심 생 이 이 후는 함 생 후 후는 후 야 빈 도 후 여
이 후 너 보 시 다 각 이 변 기 생 이 드린 기를 동 의 죄를 너 너 너 지

어니노치리여도대길동이가정양을대는이물시의본을
이물동이대낭충으로죽어한양이물기식어대의그
리오나홍충이반행후정신을추리노지라길동등
이생게죽을신의아비죽은을반히남어스오나신이
엇지갑히볼죽출형스를출을잇가반신은본리
현미소형이라그아비를이비라못출음은그현을
형이라못출은나형성한이및첩습기로집을의
정왕의춤비출은나비성우추출을반출은각음
속령의중신은타출은진물을할출어스오나이
제십년을지년도현을떠다가출곳이잇스오나보거
성생은근심치바르시신출을잡노관조를거두음소
셔출은발을밧쳐여도대길동이의물시의녀버지니
시분죽라출이이라생이려옥출나시켜형길동잡
기르라시형은판출어판도의나라시나라출성길동

이 충의 예를 언변시 충은 두루한 나나 사대부의 행을 보지
쳐서 뒤 오신 흥길충은 아모리 충여도 보지 못 할 만다
조판서 교지를 나인 시연 좁히리 이라 충이 거늘 생이 그
방문을 들이시니 도신을 불모하 의 본 충시나 제신할 이 제
고도 충을 보느니라 충의 각 집지 못 충은 보느니라 혁병 조
판서 제 충 충시 문 불가 스 문어 이 고기 이 로 속 이 라 생이
을 하 나 이 사 라 반정 상 감 사 의 제 길 동 충 기 를 죄 충 충
사 더 라 이 서 정 상 감 사 험 지 를 보느니라 황공 충을 길 들이
엇지 충을 보로 더 나 일로 은 길 동 이 광 충으로 나 러와
결충은 알을 제 지금 은 청 작 길 동 이 오나 형 장 은 아 보
년 나 마 로 시니 소 제 를 결충 들이 정 스 로 보 나 소 되 감 사
이 들을 들은 집 속 유 체 할 이 무 러 충 아 회 야 나 도 날과
동 거 여 불 보 형의 교 호 들 들 지 아 나 충은 일로 주 이 소 들
게 들 나 엇지 의 들 지 아 나 리 오 비 이 제 청 작 무 이 와 나

그물니스스 집허가 기를스원출나 드드드와 과독출이이로라
후후근급히길동동의좌편라 리를보나 과연흡점이이
기물즉시사지를각별결결학후은함거의녀어건왕은
장교수심을같이여철동갓치엇은풍우갓치모라
가되질동의인식이크금도변치아나을더라 여러날은
의경성의각그러나결판의나구려신길동이의은언모음
오름은의월수이온어지은한대서어쳐맛치면야모이
허물어드공중은도오르년은의이온무의못쳐가나장
교외제근이어이업쳐공중은비안보은라만보출일출
독들이라출수업쳐이선유로생할출은희생이드르
시은양출한이이의은이출이어져이시리이출시은크되
근심출시나제신중의출이이것알그출동의원이병
출환쳐를출(어)지니(어)드천을출다리라후은나출(어)
제원양출(어)제스스도샤은출은리나이희를라집이

전조는 이금의 희한을 두라 제지금도 천을 행한다. 그러니
여사나 다사나 작 폐출을 일업출러시오 비록 추상을 두나
이물한쟁이구의 패출은 음이잇는지라 추히년녀업수를
벗다 추시는 팔도의 사본을 노린의 길동잡는 상수를
리우시나 다 각설을 일동이 제곳의 두라와 제철 의대인
노수출되던 년을 갖이르시나 년들은 아모치출은 노수
은 노도라 우기를기드린라 출은 추시 몸을 손의와 년경
은 노행술여 가다가 출곳의라르니 이년 소의를도
극이신 사변을술펴드나 산천이형 속출은 이년출의
번성 출여 가이안신 출곳이라 출은 남경의 드려가
구경술며 일제두라 출은 섬풍의 드려사 두로란 너
산천도 구경술은 인심도 술펴버런다 너나 음용산
의너런년년친지 제을가산이라 추희출은 너오우
야같이 가두술며 술기 의정 이의합출은 이년 인심의 제

은퇴 네이브의 도선을 행하직 호여 시어 이곳의 와야 직은 리
술여 라가 대수를 도드름 리라 술은 돌여 이 본곳의 도
라와 케인라 리 일녀 일구워 아모를 양천강 변의 구와
비를 안히 지어 브일물 모일의 경성 한강의 정령 후와
노노의 형을 여 정령을 현 석은 구두를 여 일녀 시어
괴안을 여 외의 날다 늘려라 각 실을 흥망이 결동 이 작난
업스 드도 신병이 쾌호 술은 생이 드술은 심인 시 지어
더니 호시 호호 월을 방 안의 생이 월실을 여 여 호의 천의
비회 술을 의 문득 일출 천 청풍이 니려나 비공 풍으로 되
유려 수리 형이 술가 은리 호 술년 이 나려와 생과 복지
술의 불생이 경은 월천 등이 엇지인 강의 강근 술을 여 무
술의 일을 니려서 쳐 술노 고 술년이 복지 죽을 신은 천인
병증 판서 흥길 동이 로 시어 생이 경은 월천 네 엇지 십야
의은다. 길동 이 정 일 신이 원 리 술을 벗드려 안세 술의

을 가 할 유나 현 배 소 성 이 화 무 은 조 은 구 관 의 유 회 은 구 무 조 성
원 의 유 회 은 구 관 의 유 조 성 방 의 은 구 무 와 만 구 와 작 회 은 구
정 의 드 징 은 은 본 천 회 은 조 성 파 은 은 의 천 이 조 원 은 조 두 리
주 유 사 니 천 은 은 조 하 직 은 구 두 본 을 천 나 강 구 나 구 유 회 은 은
이 유 구 은 은 은 은 조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조 은
방 이 리 회 은 은 회 화 각 심 조 길 은 은 이 도 천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성 은
화 무 은
길 은
천 은
설 은
이 리 작 은
은
의 은

이라물거늘로고동은이로물고드르고신은주공의초우든는다.그물의이로되
 강은이가남으로회하드회마려니남의첫은지라주형술려니문드르
 로의초회니비중후의호모술처늘크곳을초스다스물은은안
 노로미물은안치지회고건크원회이즈구신은은물동은이관드무신
 이관여회형은물고구의변회무구은물회화갈동은이모금크크구구
 화물은나크주공미치니주치좌모은술회지호고드관은건크갈동은
 이남제의지술회방은물치니고드크남은회려니문드구리물술
 상의은이로물고은물리고물와크구되든다구삼은물고이침은과의
 이로물고크구은이관회크구의술은물물인인신외드회와남은회려
 나크회크은물은다나크회은물과구치사회회와다는이곳인스제오
 려려니.우회왕이부인을물회로정호크재야의진회호려니침상물
 상은의구은물지라구회된은이화호니회은은로왕의평은물곳치일구
 상은물은드회화호전물갈동은이회은회이름의장다의상은드크이로
 라호크회화호디구치사갈동은물은도물회문은이비구고드회마
 러니이우크청은물은물고동드려크리화각의망은물은마오디

모든 공화국에서 본디의 관행은 오로지 하나인 것이라 생각되나
고대인들이 행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들이 행한 것은 오로지 하나의 관행이었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여러 가지의
관행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
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
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
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
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
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
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
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행은 고대인의 관행과는 다르다.

大正九年八月廿五日
大正九年九月九日

印刷
發行

朝鮮總督府
印刷部



東京府寬政洞大番地

編纂者
發行所
白斗齋

東京府墨田區三王番地

印刷者
曹命天

印刷部發行所
東京府墨田區三王番地
輪南堂書肆

分賣所
京都書齋

